Whose Holy City?[1]

콜린채프만 지음 | 권지윤[2]

예루살렘은 사해에서 서쪽으로 약 24㎞, 지중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56㎞ 떨어진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중해 연안 평야와 요르단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이다. 지정학적으로 여느 다른 도시보다 특별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지도 않은 하나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별함이 이 도시에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 작은 도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시청하는 뉴스의 한 코너에 지속적으로 등장했었다는 사실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국가와 중동지역의 여러 아랍 국가들의 정치인들 간에 뜨거운 이슈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 도시가 갖는 특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흔히 이/팔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외에서 이 도시 예루살렘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이다. 이/팔 갈등이라는 제목아래서 등장하는 많은 이슈들은 오랫동안 국제 정치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정치적 이슈들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암울한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현재 이 곳 예루살렘과 그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그 갈등의 영향력은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커져버렸다.

특별히 이곳 예루살렘의 주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수많은 충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이들까지도 그 갈등에 대해 흥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이슈들이 미국과 같은 서구 지역과 중동의 여러 아랍국가간의 정치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비 아랍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러

1 2008년 3월 예영출판사 출판 예정 (Colin Chapman, Whose Holy City? BakerBooks Grand Rapids, Michigan,2005)

2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횃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 연구소 연구원

한 사실들은 이 도시 예루살렘의 갈등과 충돌이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기독교인들, 무슬림 더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는 시오니스트들에게만 국한 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루살렘의 갈등에 대해 비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 예루살렘의 주권다툼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 그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분명 예루살렘은 여느 작은 도시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든다. 아마도 이 도시 예루살렘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한다면, 지난 4천년에 걸쳐서 이 도시에서 점증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와 정치 그리고 종교와 신학을 동시에 포괄하는 예루살렘의 독특함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도시 예루살렘이 갖는 특별함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루살렘이 포괄하고 있는 특별함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실 즉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올릴 때 마다 잊혀지지 않는 특별함은 이 도시가 성지라는 사실이다. 이 성지는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어느 한 종교의 성지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려 세 가지 종류의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주요 종교들의 성지로서 상징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갖는 특별함은 이 세 종교의 성지라는 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세 종류의 종교와 신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이 현재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정치적 패권다툼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다툼이 현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거나 파멸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실이 포괄하고 있는 특별함이 결코 이 도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작게는 중동의 아랍지역의 평화와 크게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갖는 포괄적인 특별함은 결국 이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로서 상징되어 질 수 있는가? 갈등과 충돌의 도시로서 상징되어져 버렸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평화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과, 갈등과 충돌의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이 도시가 지난 사천여년 동안 지녀온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 도시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평화를 향하여 갈등하면서 그 역사 속에 함께 공존했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상징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특별한 상징 즉 그들의 영혼에 위안을 주는 상징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은 이러한 상징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콜린채프만(Colin Chapman)의『Whose Holy City?』라는 이 책은 이렇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도시 예루살렘이 가지는 포괄적인 상징성 즉 예루살렘의 특별함에 대해서 지난 사천여년 동안 예루살렘이 지녀온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서술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상징성 즉 그 도시의 특별함에 무엇인가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콜린채프만은 예루살렘이 가지는 역사, 정치 그리고 종교, 신학을 포괄하는 특별함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서, 갈등과 충돌의 상징으로 인지되고 있는 이 도시가 그 본래의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콜린채프만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현재 갈등과 충돌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들의 생명권과 주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즉 이러한 노력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기여는 그들, 현재 그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평화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콜린채프만은 이 책 『Whose Holy City?』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온 풍부한 인간들의 모자이크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예루살렘이 갖는 특별한 상징성을 예루살렘의 역사와 함께 서술해 나간다. 즉 구약시대부터 그의 긴 여정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하고 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를 가진다. 역대상 23:25에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예루살렘은"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라고 서술한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곳은 전성기를 누리지만 BCE 586 바벨론 유수로 인하여 폐허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함을 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장소로서 상징되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게 된다. 특별히 시편 87편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에게 열려있는 신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시인 이 곳에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오랫동안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온 모든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종교적 편견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BCE 6세기 헤롯왕 시대에 재건된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즉 예수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즉 하나님이 임재 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예수 그 자신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었다. 예수는 그 자신을 성전의 모델로 택하고 그 자신을 성전으로 내보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혹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 그 자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즉 예

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요한계시록)으로 표현되면서 더 이상 지엽적인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는데 이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창조된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략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CE70년(유대와 로마의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의 바코크바 반란(CE132-135)과 로마인의 통치로 또 다시 폐허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사건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이 가지는 특별한 상징성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곳 예루살렘은 폐허 속에 사라져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 예루살렘은 그 특별한 상징성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또 다시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것은 CE638년 무슬림들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다. 이 시기 즉 칼리프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CE 810년경 바위 돔에서 남쪽으로 수 백미터 떨어진 곳에 알 아끄사 모스크가 건축되면서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에게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거룩한 지역으로서 인식되었으며, 본격적으로 "거룩한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 무슬림 순례자들은 하지(hajj)때 행하는 메카의 카바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위 돔 주위를 돌며 순례를 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 시기 이후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역사성은 세 종교의 성지로서 갖는 특별한 번영과 평화의 상징성과 함께 갈등의 씨앗이 되는 위험한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CE 1099년 기독교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의 특별함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십자군이 입성하면서 그 곳에서는 끔직한 대학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은 수 세기가 지난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갈등의 원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의 무슬림 살라딘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기독교 십자군과 무슬림사이에 충돌에 대한 무슬림들의 이해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당신들(기독교/유대인)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 도시는 우리에게 더 신성한 곳이다. 왜냐하면 그 곳은 우리의 선지자가 밤의 여행을 마친 곳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모일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점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고.... 라고 하였다.(본문102면/James Reston) 살라딘이 1187년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았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 속에서 1917년 12월 11일 에드먼드 알렌비(Edmund Allenby)장군이 영국과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구도시에 입성하면서 영국의 위임통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위임통치는 예루살렘이 평화가 아닌 갈등과 충돌의 상징이 되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서구의 통치가 무슬림들에게는 중

동에서 십자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1947년 위임통치가 끝났지만 이 도시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현대에 이르는 이 갈등의 정점은 아마도 1967년 6월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쟁이후 이스라엘군이 성전산, 통곡의 벽, 다마스쿠스 문 방향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국회가 "예루살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도시이며,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다"(본문145면)라고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도시는 작은 자극에도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전쟁 이후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예루살렘은 좌절과 분노가 들끓는 갈등과 충돌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도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옛날 유대성전이 있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당한 아픈 역사 속에서 다시 통곡의 벽 앞에 서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들 자신을 위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상징을 폭력으로 되찾는 그 순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아랍인들은 그들의 상징을 빼앗기는 폐배를 경험하면서, 이슬람의 성지가 파괴되었다는 모욕감에 휩싸여야 만 했다. 무슬림들이 그들의 성지로서 상징된 예루살렘을 빼앗긴 것에 대한 모욕감은 이 전쟁이후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드러나지 않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2004년 이스라엘에 의해 188킬로미터의 "분리장벽"이 예루살렘 북쪽과 북서쪽으로 설치되면서, 팔레스타인의 사회는 "민족과 땅이 분리되고, 격리, 구별된 잡동사니" 처럼 조각나버렸고 이곳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렸다. 이러한 조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끊임없는 충돌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예루살렘의 충돌은 이 지역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이 도시 예루살렘이 아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이 도시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 사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한 종교적 동기를 이용되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몸부림치며, 평화를 향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세 종교 모두에게 성지로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에게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게 되었다.

콜린채프만은 이 책『Whose Holy City?』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예루살렘이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서 공유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이 책을 마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만약 이러한 희망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예루살렘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남을 수 있는 희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예루

살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그들 즉 그 지역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눈앞에 실재하는 예루살렘의 평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화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 맘속에 깊게 염원하고 이러한 염원들이 실제적으로 서로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공유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공유가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그 영향력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해 전해질 수 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의 평화는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콜린채프만은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이 책『Whose Holy City?』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평화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서로가 사라져야할 존재로 인식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이 도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평화의 한 조각, 조각으로서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 땅의 일부와 도시에 느끼는 동일한 애착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다. 더 나아가 서로가 다른 쪽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평화의 정치적인 구조를 성립해 나가는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곳의 주요한 종교들이 다양한 신학을 포용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리와 신분을 지녔음을 인식하는 종교적 관용의 성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본문195-198면)

예루살렘은 그 곳이 세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콜린채프만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본질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공유되어진 주권 안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Whose Holy City?』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지니는 정치, 사회, 종교와 신학의 포괄적인 특별함으로서 그 상징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가 가지는 특별한 상징은 이 도시가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에 위안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즉 이 도시 예루살렘이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는 상징으로서 평화는 시대를 넘어서서 강화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상징이 되어 우리들 모두의 삶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희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현재에 갈등과 충돌을 넘어서서 평화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